

지영미 질병청장,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보건 안보 협력기반 확대

- 기조 발표 통해 질병관리청의 대(對) 아프리카 국가 협력 계획 발표
- 아프리카의 보건안보 및 백신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례 소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월 4일(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Afric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공동으로 ‘한-아프리카 보건 파트너십 : 백신 접근성 및 보건 안보 강화’를 주제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백신 접근성 및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아프리카 보건 파트너십 : 백신 접근성 및 보건 안보 강화 개요 >

- ▶ (일시·장소) '24. 6. 4.(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 (참석자) 아프리카 보건 및 백신 관련 정부, 산업, 학계 관계자 100여 명
- ▶ (의의)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주요 이해 관계자 간 아프리카 백신 접근성 및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논의

이번 부대행사의 첫 번째 세션은 제롬 김(Jerome Kim)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축사, 그리고 라지 타주딘(Raji Tajudeen)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사무차장 대행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은 기조 발표로, 정유진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이 질병관리청과 아프리카 CDC 및 대륙 내 국가들과의 협력 계획을 발표하였고, 아프리카 CDC에서는 아프리카 백신 제조 파트너십(PAVM, Partnerships for African Vaccine Manufacturing)*에 대해 발표하였다.

* PAVM: 아프리카 CDC는 2040년까지 아프리카 내 백신의 60%를 자체 생산(local production) 한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이후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아프리카 협력 전략인 ‘AVEC 아프리카*’ 계획(이니셔티브)에 대해 공유하였다.

* AVEC 아프리카: 아프리카 CDC의 자체 백신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IVI의 포괄적 백신 연구개발 사업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국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공동 설립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oundation,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oundation), 케냐 과학기술원(Keny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유바이오로지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성공 사업 및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부대행사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방한한 여러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약 200명이 참석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및 아프리카 대륙 내 백신 접근성 확대와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라지 타주딘 아프리카 CDC 사무차장 대행은 “한국의 질병청 및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은 백신 및 기타 보건제품에 대한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아프리카 대륙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히며,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국제백신연구소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인력양성허브 사업을 통해서도 백신 생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내 백신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영사에서 지영미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효과적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 '23년 5월 중장기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mRNA 백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하고,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하여 국제백신연구소 및 아프리카 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건안보 분야의 국제적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부대행사 개요
 2.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부대행사 주요 사진

담당 부서 <총괄>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정유진	(043-719-7750)
		담당자	사무관	이신예	(043-719-7759)
담당 부서	국제백신연구소	책임자	과 장	Aerie Em	(02-881-1386)
담당 부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관리센터	책임자	과 장	Margaret Edwin	EdwinM@africacdc.org



□ **행사 개요**

- (배경 및 목적)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 계기, 대(對)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보건안보 협력 강화 및 백신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협력 논의
- (일시 및 장소) 2024. 6. 4.(화) 15:00 ~ 17:3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 볼룸
- (주제) 한·아프리카 보건 파트너십: 백신 접근성 및 보건 안보 강화(The Korea-Africa Health Partnerships: Enhancing Vaccine Access and Health Security in Africa)
- (공동주최) 한국 질병관리청, 국제백신연구소, 아프리카 CDC
- (참석자) 아프리카 보건 및 백신 관련 정부, 산업, 학계 관계자 약 200여명 규모

□ **프로그램**

시간	구분	비고
1부 개회		
15:00-15:30('30)	인사소개	Vincent Canouet, IVI 사무차장
	환영사	① Dr. Jerome Kim, IVI 사무총장 ②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③ Dr. Raji Tajudeen, 아프리카 CDC 사무차장 대행
	단체 사진	
2부 기조발표		
15:30-16:00('30)	질병관리청-아프리카 협력 로드맵	정유진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백신 자급자족을 위한 아프리카CDC PAVM 프레임워크	Dr. Chiluba Mwila, 아프리카CDC PAVM
	IVI 전략적 파트너십 계획 및 AVEC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Dr. Jerome Kim IVI 사무총장
2부 모범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16:00-16:55('55)	RIGHT 재단 아프리카 협력 현황	이훈상, RIGHT 재단 전략이사
	IVI의 경구콜레라백신 기술 이전 사례	Dr. Morena Makhoana, 바이오백 대표 (영상참여)
	유바이오로직스-DEK 가나 협력 사례	Rachel Park, 유바이오로직스 국제사업 국장
	IVI의 아프리카 역량개발 프로그램	Alice Lee, IVI 사업개발 국장
	아프리카 CDC 역량개발 프로그램	Dr. Chiluba Mwila, 아프리카CDC PAVM
	케냐 과학기술원 사업 현황	Prof. Emmanuel Mutisya, 케냐 과학기술원 이사장
	질의 응답	
16:55-17:00('5)	폐회사	
17:00-17:30('30)	칵테일 리셉션	



지영미 청장,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부대행사 (06.04.)_Africa cdc, Nobel cubahiro와 대화하는 지영미 청장



지영미 청장,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부대행사 (06.04.)_단체사진



지영미 청장,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부대행사 (06.04.)_환영사 01



지영미 청장,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 부대행사 (06.04.)_환영사 02